

학업 병행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전은미*, 임효남**, 이미향**, 김두리**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e-mail:jymshy7@naver.com

Effec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Nurses in Schoolwork

Eun Mi Jeon*, HyoNam Lim**, Mi Hyang Lee**, Doo Ree Kim**

*student,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전문직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교육부령이 지정한 대학급 이상의 간호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까지 포함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D시에서 전수조사 하여 148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병행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r = -.329, p < .001$)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전문직 삶의 질($r = .181, p = .028$)과 정적인 상관관계, 직무만족도와 전문직 삶의 질($r = .329, p <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병행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beta = .363, p < .001$), 직무만족도($\beta = .423, p < .001$), 학력($\beta = .167, p = .02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2.8%였다.

기회를 주게 된다.

삶의 질이란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 의식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4]. 병원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요구로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공감역량이 떨어지고 소진되므로 환자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며,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연결되어 업무수행과 사기와 업무능률을 감소시켜 환자 간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2].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은 환자의 건강과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5].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 병행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전문직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 서론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간호사도 다양한 전문성과 역할확대가 필요시 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 및 간호전문화와 더불어 간호사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egistered Nurse-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RN-BSN),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 전공심화과정, 방송통신대, 대학원 과정과 같은 계속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1].

간호사는 교육을 하고 직접 수행하며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교대근무를 하는 등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으면 개인의 육체적, 심리적 변화 외에 일에 대한 책임감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사기, 업무능력, 수행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2].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자신의 사기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직무환경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여[3], 간호사 성장의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교육부령이 지정하는 대학원 석사(일반 및 전문간호사) 및 박사 학위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 중이고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D시의 간호대학을 전수조사 하였다.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48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 (year)	≤30	49(33.1)	33.91
	30-40	69(46.6)	±6.45
	≥40	30(20.3)	(세)
Gender	Male	12(8.1)	
	Female	136(91.9)	
Religion	None	73(49.3)	
	Christian	41(27.7)	
	Buddhism	14(9.5)	
	Catholic	20(13.5)	
Marital status	Single	80(54.1)	
	Married	65(43.9)	
	Divorce	3(2.0)	
Education	Master's course (general process)	47(31.7)	
	Master's course (advanced practice nurse)	84(56.8)	
	Doctor's course	17(11.5)	
Shift pattern	Shift work	85(57.4)	
	Day shift only	63(42.6)	
Total clinical career (year)	≤5	22(14.8)	10.65
	5-10	59(39.9)	±5.66
	≥10	67(45.3)	(년)
Current position	General nurse	121(81.7)	
	Responsible nurse	13(8.8)	
	Head nurse's aberration	14(9.5)	
Pay (10,000)	≤4,000	80(54.1)	
	≥4,000	68(45.9)	

3.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전문직 삶의 질의 정도

직무스트레스는 2.37±.26점이었으며, 직무만족도는 2.89±.30점, 전문직 삶의 질은 2.89±.29점이었 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148)

	M±SD	Range
Job stress	2.37±.26	
Job demand	2.61±.26	1 - 4
Insufficient job control	2.23±.44	
Interpersonal conflict	2.06±.41	
Job insecurity	2.24±.72	
Organizational system	2.57±.45	
Lack of reward	2.52±.47	
Occupational environment	2.34±.50	
Job satisfaction	2.89±.30	
Pay	2.97±.37	1 - 5
Professional Status	2.94±.64	
Administrative aspect	2.73±.59	
Autonomy	2.84±.69	
Task	3.05±.49	
Interaction	2.84±.46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2.89±.29	
Compassion Satisfaction	3.39±.58	1 - 5
Burnout	2.67±.51	
Secondary Traumatic Stress	2.60±.53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전문직 삶의 질의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8)

Variables	Categorie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Age (year)	≤30 ^a	2.42±.28	2.05(.13)	2.78±.29	10.898(<.001) c>a,b	2.87±.30	.918(.40)
	30-40 ^b	2.36±.25		2.89±.29		2.88±.28	
	≥40 ^c	2.30±.24		3.08±.26		2.96±.29	
Gender	Male	2.57±.13	-.27(.78)	3.02±.27	1.63(.10)	2.95±.24	.87(.38)
	Female	2.58±.19		2.86±.32		2.88±.29	
Religion	None	2.42±.23	2.55(.06)	2.85±.29	1.12(.34)	2.87±.29	.53(.67)
	Christian	2.33±.27		2.91±.35		2.93±.29	
	Buddhism	2.36±.25		2.94±.30		2.85±.26	
	Catholic	2.26±.31		2.97±.25		2.89±.28	
Marital status	Single ^a	2.40±.25	1.74(.18)	2.80±.28	8.64(<.001) c>b	2.89±.25	.03(.97)
	Married ^b	2.34±.26		2.99±.30		2.88±.33	
	Divorce ^c	2.17±.28		3.10±.04		2.90±.08	
Education	Master's course (general process) ^a	2.44±.21	2.72(.07)	2.88±.32	1.89(.16)	2.85±.27	3.48(.033) c>a,b
	Master's course (advanced practice nurse) ^b	2.34±.28		2.87±.29		2.88±.29	
	Doctor's course ^c	2.32±.24		3.02±.30		3.05±.29	
Shift pattern	Shift work	2.43±.24	3.33(<.001)	2.85±.29	-2.01(.05)	2.89±.26	.39(.74)
	Day shift only	2.29±.26		2.95±.31		2.88±.33	
Total clinical career (year)	≤5 ^a	2.45±.19	2.96(.06)	2.75±.35	6.78(.002) c>b>a	2.93±.22	.776(.46)
	5-10 ^b	2.40±.29		2.84±.30		2.86±.31	
	≥10 ^c	2.32±.24		3.00±.26		2.90±.29	
Current position	General nurse	2.38±.26	.84(.43)	2.87±.31	2.12(.12)	2.91±.29	1.88(.16)
	Responsible nurse	2.32±.26		2.92±.25		2.75±.27	
	Head nurse's aberration	2.30±.30		3.04±.26		2.87±.23	
Pay (10,000)	≤4,000	2.35±.26	-1.00(.32)	2.86±.30	-1.23(.22)	2.87±.29	-1.11(.28)
	≥4,000	2.39±.26		2.92±.31		2.92±.28	

3.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전문직 삶의 질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모든 변수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Partial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148)

	Job stress r(p)	Job satisfaction r(p)
Job satisfaction	-.329(<.001)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181(.028)	.329(<.001)

3.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력을 독립변인으로 입력하고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806, p<.001),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β=.363, p<.001), 직무만족도(β=.423, p<.001), 학력(β=.167, p=.025) 이었고,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148)

Variables	B	β	SE	t	p
(constant)	.906		.354	2.559	.012
Education	.075	.167	.033	2.258	.025
Job stress	.401	.363	.087	4.607	<.001
Job satisfaction	.403	.423	.074	5.415	<.001
F=11.806 p<.001 R ² =.250 Adjusted R ² =.228					

* Dummy variable : 학력(일반석사, 전문석사과정=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석사(일반 및 전문간호사), 박사 학위 학생들로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추후,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며, 간호사의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구 세미나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처우(인센티브, 승진 등)가 개선되면,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어, 전문직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하여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이 있어, 추후 연구대상자 확대를 통한 반복,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J. Choi & H. J. Park. (2009).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in Schoolwork.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1), 37-44.
- [2] H. H. Lim. (2018).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Moderating Effects of Empathy Competence among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 [3] H. H. Park, K. S. Park, Y. H. Yeom & K. H. Kim. (2006). Impact of Clinical Nurses' Power and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2), 244-254.
- [4] B. Y. Park. (2012).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Labor with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General Hospital Personnel. Doctor's thesis. Chosun university, Jeollanam-do.
- [5] Y. H. Bae & T. H. Lee. (2015). Relationship of Experience of Violenc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for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1(5), 489-500.